2020-CR-07
작은연구 좋은서울 20-07

행복주택 청년들의 문화진흥 정책연구

임주왕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

임주왕 항동주민
xs87435@gmail.com

김은지 항동주민
menamaryam04@gmail.com

김샛별 항동주민
blingbling_byul@naver.com

'작은연구, 좋은서울'은 시민 스스로 일상 현장의 문제를 연구하고
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연구원의 연구지원사업입니다.

행복주택 청년들의 문화진흥 정책연구
- 서울시 구로구 항동지구를 중심으로

연구책임

임주왕 항동주민

연구진

김은지 항동주민

김샛별 항동주민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차

01 서론 1

1_연구배경 및 목적 1

1) 청년 및 주거 '문제' 1

2) '행복주택'이라는 청년들의 주거 형태 1

3) 청년들의 집단 내 문화 양상 2

2_연구내용 및 방법 3

1) 연구내용의 구성 3

2) 연구방법 3

3) 연구모형 3

02 선행연구 및 정책 현황 5

1_행복주택 관련 선행연구 5

1) 주거 정책 5

2) 청년 행복주택 관련 연구 6

3) 청년들의 집단 내 문화 양상 및 청년정책 동향 선행연구 7

2_청년 및 행복주택 관련 정책 현황 8

1) 청년 행복주택 관계법령 및 관련근거 8

2) 서울시 및 구로구 정책 현황 8

3_항동지구 청년 행복주택 개요 10

1) 일반현황 10

4_주거적 특성 12

1) 문화적 특성 12

2) 자생단체 현황 12

03 연구과정 14

1_연구모형 설계 14

1) 설문조사 14

2) 인터뷰 14

3) 전문가 자문 14

4) 기관 인터뷰 15

04 연구내용 16

1_설문조사 16

1) 1차 설문 16

2) 2차 설문 20

2_인터뷰 27

1) 1차 인터뷰 27

2) 2차 인터뷰 및 면담 28

3_문화진흥 활동 30

1) 개요 30

2) 행복주택 내에서의 문화진흥 활동 30

05 결론 32

1_연구 결과 요약 32

2_행복주택의 청년문화 정책적 방향 33

1) 지원 시책 및 방법 33

2) 인프라 조성 33

3) 정주 여건 조성(민원요소 해결) 34

4) 주변 자원 활용 34

5) 결론 34

참고문헌 36

표 목차

[표 2-1] 청년 및 행복주택 관련 주요 법령 및 조례 8
[표 2-2] 구로구 청년정책 세부추진과제 4개 분야 9
[표 2-3] 항동지구 행복주택 현황 11

[표 4-1] 1차 인터뷰 질문 내용 27
[표 4-2] 2차 인터뷰 질문 내용 28

[표 5-1] 연구 결과 정리 32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모형 3
[그림 2-1] 서울시 주요 청년정책 9
[그림 2-2] 항동지구 토지이용계획도 10
[그림 2-3] 행복주택 조감도(9단지, 3개 동) 10
[그림 2-4] 행복주택 주변 요소(항동철길, 푸른수목원) 12

[그림 4-1] 연령대 16
[그림 4-2] 응답자별 업종 17
[그림 4-3] 기혼 여부 17
[그림 4-4] 주거 만족도 18
[그림 4-5] 주거 편의성 18
[그림 4-6] 경제적 영향 19
[그림 4-7] 커뮤니티 19
[그림 4-8] 비용 지출 20
[그림 4-9] 설문조사 포스터 21
[그림 4-10] 연령대 21
[그림 4-11] 업종별 종사자 분포 22
[그림 4-12] 고용형태 22
[그림 4-13] 기혼 여부 23
[그림 4-14] 지원 시책 23
[그림 4-15] 근무시간 24

[그림 4-16] 커뮤니티 24
[그림 4-17] 행복주택 살이에 필요한 것들 25
[그림 4-18] 커뮤니티 활동 관련 25
[그림 4-19] 취미활동 및 관심사 26
[그림 4-20] 11단지 마을공동체사업 활동 현황 31

[그림 5-1] 행복주택 청년문화 정책방향 35

01. 서론

1_연구배경 및 목적

1) 청년 및 주거 '문제'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 사회를 겪으며, 상대적으로 '청년'의 입지는 줄어들고 있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청년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를 위한 여러 정책을 내고 있다. 하지만 여러 시책들을 보았을 때, '지원'에 관한 정책에 그치고 있어 '삶의 질'에 관한 정책이나 연구는 많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주택'이라는 형태로 입주한 청년들의 문화 양상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진흥시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행복주택에 입주한 청년들은 그리 소득이나 경제적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주거'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기 때문에 '문화적 특성'에 관심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행복주택'이라는 청년들의 주거 형태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최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고령자들의 주거 형태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 현재는 교류가 있는 집단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집단도 산재하고 있어 이러한 형태에서 어떤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지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행복주택은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괜찮은 편이라 할 수 있으며, 일시적이지만 많은 청년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6~10년 안에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 학생~사회초년생 시절에 잠시 거쳐 가는 단계로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을 '기회'로 생각한다면, 청년들의 향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청년들의 집단 내 문화 양상

최근의 청년들이 모여 사는 집단은 어떤 문화적 특성을 보이는지, 어떤 트렌드를 가졌는지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연구대상으로 삼은 지역은 약 1,000여 가구의 청년들이 거주하는 행복주택으로, 어느 정도 집단문화가 형성되기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서울에 있지만 다소 외곽에 있어 교통 등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고, 새로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것 등 여러 입지 특성을 갖고 있어 부족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점도 연구에 유리했던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변의 생활요소들을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행복주택이라는 제도 안에서 청년들이 어떤 문화를 갖고 생활하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서울의 다른 행복주택이나 타 지역의 행복주택에도 해당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자 한다.

2_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의 구성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문화진흥에 관한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청년들의 행동 및 성향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집단에 대한 문화적 특성들을 진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기존에 진행된 문헌연구와 인터뷰 및 설문조사, 문화활동 등을 실시하여 어떤 형태의 모델이 청년집단문화연구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의 청년이나 행복주택 및 주거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를 확인하고, 기관의 지원 시책과 동향을 알아보며 항동지구 행복주택의 일반적인 환경들을 조사한 후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각 2차에 걸쳐 진행한다. 다소 교류가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나누어 진행할 예정인데, 이는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참고가 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지,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등을 본 연구를 통해 알아볼 것이다.

3) 연구모형

연구에 사용한 기본적인 모형은 아래와 같다.

[그림 1-1] 연구 모형

1차로 소규모 집단 설문, 인터뷰를 실시하고, 연구와 관련한 전문가 자문 실시 후 전체

인원들을 대상으로 2차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후 기관(서울시, 구로구)을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이나 계획 등을 알아본 후, 문화진흥을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결과들을 결론에 반영하여 정책제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02. 선행연구 및 정책 현황

1_행복주택 관련 선행연구

1) 주거 정책

행복주택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부동산이나 주거와 관련한 정책연구가 많았다. 주택의 가격이나 도시정책과 관련된 연구들이 타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된 바 있었다. 최근 부동산 정책 관련한 이슈들이 많고, 집값도 많이 오르고 있으며 공공주택과 관련한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복주택과 관련한 주거정책 연구는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고진수 외(2017)[1)]에서는 '행복주택이 인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행복주택이라는 임대형태가 인근에 위치한 주택의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거 관련 기초 통계량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행복주택과의 거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연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의 주택상승률 대비 인근지역의 상승률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기존 임대주택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지현 외(2020)[2)]에서는 연구시점까지의 행복주택사업을 각 성과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다소 갈등과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고, 공급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를 개발하여 성과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인터뷰, FGI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입주자들의 만족도 수준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거비 절감이나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질적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

1) 고진수, 이창무(2017), 행복주택이 인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주택연구.
2) 김지현, 강수진(2020), 행복주택 성과지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주택연구.

김성연 외(2015)[3]의 연구에서는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정책요인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행복주택 건설과 관련한 환경적 요인들, 주체, 사업목표 및 정책적 항목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정책요인 간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주민의견수렴 확대, 생활환경 개선, 경제성 제고 및 공공시설 확충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러한 요인들은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중요하게 인식되었던 부분들이며, 향후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세부적으로 더 연구한다면 좋을 것이라 본다.

김종언(2016)[4]의 연구에서는 '행복주택의 새로운 시도와 과제'라는 이름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LH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들과 행복주택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본적인 추진 방향은 각 시설의 기능적인 부분을 강화하여야 하며, 특화단지별 공용시설이나 대학과 같은 입지조건 등을 고려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청년)창업자들에 대하여도 지원이 갈 수 있는 시설 등이 계획되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해당 선행연구를 통하여 주택 및 주거정책에 관한 연구 동향과 정책방향을 알아볼 수 있었으며, 주거적인 조건들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주거 측면보다는 문화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기본적인 조건들이나 생활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관련 선행연구들이나 지표, 연구방법 등을 참조하고자 하였다.

2) 청년 행복주택 관련 연구

'행복주택'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에서 청년들의 주거 형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가 수행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항목에서는 행복주택과 관련하여, 정부나 지자체에서 기대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고자 한다.

신동윤 외(2016)[5]에서는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의견과 개선방향을 연구하였다. 거주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일반적인 특성과 같은 기초 통계량 및 행복주택에 대한 인식, 각종 요구사항들을 조사하였다.

---

3) 김성연, 권성문, 서원석, 양광식(2015),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정책요인 우선순위 분석 연구, 국토연구.

4) 김종언(2016), 행복주택의 새로운 시도와 과제,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5) 신동윤, 권오정(2016), 행복주택에 대한 대학생의 의견과 개선방향,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3) 청년들의 집단 내 문화 양상 및 청년정책 동향 선행연구

청년들이 모여 사는 집단은 어떤 문화적 특성을 보이는가에 중점을 두고, 각자 고향이나 살던 지역은 다르지만 같은 곳에 모여 살고 있게 되면 어떤 문화적 특성을 보이는가도 본 연구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들을 다른 선행연구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참조하였다. 주로 청년 일자리나 지원 정책에 치우쳐 있는 경향은 있지만, 커뮤니티나 문화적 측면도 찾아볼 수 있었다.

장진업 외(2015)[6]에서는 행복주택 내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성화 방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온라인 콘텐츠와 커뮤니티의 이용 빈도, 운영 형태를 조사하였다. 지금보다는 다소 전 이야기이지만, 관련 조사 항목들이나 내용들은 충분히 본 연구에서 참고할 만하다고 보았다.

임종현 외(2019)[7]에서는 행복주택의 물리적 특성과 청년층의 주거 만족도 및 지역교류에 관한 내용을 연구하였다. 여기에서는 주거 관련 입지, 커뮤니티시설의 요구, 희망 프로그램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김경례(2018)[8]는 청년들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삶 전반에 대한 방향으로 정책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년층의 문화권 확장은 문화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일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활동과 새로운 문화의 생성이 될 수 있다고 논평하였다.

김영미(2018)[9]는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와 같은 지표들을 '복지태도'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기존의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과 그 실효성 등을 정책의 수혜자인 청년들에게 묻고, 그 태도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

6) 장진업, 강순주(2015), 행복주택 내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방향,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7) 임종현, 전진우, 신유정, 박경옥(2019), 행복주택의 물리적 특성 및 청년층의 주거만족도와 지역교류, 한국주거학학술대회 논문집.

8) 김경례(2018),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문화 정책으로, 월간 공공정책.

9) 김영미(2018), 한국 2030세대의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_청년 및 행복주택 관련 정책 현황

1) 청년 행복주택 관계법령 및 관련근거

청년 및 행복주택 관련하여, 지원 및 진흥정책의 근거로 가능할 만한 국가법령과 지자체 조례는 아래와 같다. 이와 같은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하여, 지원이나 문화진흥 관련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표 2-1] 청년 및 행복주택 관련 주요 법령 및 조례

주체	법령, 조례명
국가	청년기본법(법률), 청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

2) 서울시 및 구로구 정책 현황

① 서울시[10)]

서울시에는 청년청이라는 부처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청년청에서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정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책은 크게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의 4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문화와 관련한 활동들은 '놀자리'의 6개 사업이며, 청년들의 참여와 공간지원, 인재육성 등을 바탕으로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을 확대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정책으로는, '청년활력공간 운영 지원 강화'항목과 같은 활동공간대여 사업 및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을 통한 청년활동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과 연관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 행복주택과 같은 청년들의 집단 모임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시책은 없지만, 이러한 정책적 방향이 있기 때문에 향후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0) 2020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2020), 서울시 청년청.

[그림 2-1] 서울시 주요 청년정책

③ 지자체(구로구)[11]

구로구에서도 청년정책을 4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주로 일자리나 취업·창업 관련 사업이 많았다. '백구청'이라는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있어, 이를 발전시킨다면 본 연구와 연계한 청년들의 문화진흥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은 리빙랩 프로젝트, 토크콘서트, 네트워크 성과보고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2] 구로구 청년정책 세부추진과제 4개 분야

○ 청년정책 기반 조성 및 참여 지원 ○ 청년 취업·창업 정보 제공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 청년 창업 육성

11) 구로구 청년정책 세부추진과제(2020).

3_항동지구 청년 행복주택 개요

1) 일반현황[12)]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서울 구로 항동지구 행복주택은 2018년 3월 30일 모집공고를 시작하였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모집공고를 실시하였다.

[그림 2-2] 항동지구 토지이용계획도

[그림 2-3] 행복주택 조감도(9단지, 3개 동)

12)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표 2-3] 항동지구 행복주택 현황

단지명	총 공급호수
9단지	298
10단지	297
11단지	276
합계	871(호)

9단지, 10단지, 11단지 각 3동씩 총 9개 동이 행복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원룸형이다. 청년이 대부분이지만 저층에는 고령자(65세 이상)도 있다. 다만 고령자는 입주자 수가 적어, 일부는 청년층에게 공급하고 있다.

공급유형은 29m2 및 39m2 2가지 형태이며, 둘 다 원룸형이다. 29형도 그렇지만 39형도 원룸형 중에는 꽤 큰 편에 속한다. 실제로 39형의 경우는 가운데 공간이 텅 비어 보이기도 하여, 공간 활용이 다소 어렵기도 하다. 이러한 점은 1인 가구가 살기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갈 수도 있다. 인터뷰 내용을 봐도 그렇지만, 다소 공허함을 느낄 수도 있다.

4_주거적 특성

1) 문화적 특성

주변에는 '항동 철길'과 '푸른수목원'과 같은 관광명소와 근린공원이 있다. 항동철길은 방송에도 종종 나오는 명소이고, 푸른수목원도 관광객들이 제법 찾는 서울시립 수목원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행복주택 주민들의 스트레스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주말이면 산책을 즐기기도 하고, 동선 안에 있기 때문에 외출 시 가볍게 걸어도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항동철길	푸른수목원

[그림 2-4] 행복주택 주변 요소(항동철길, 푸른수목원)

2) 자생단체 현황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치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동대표'가 있어, 이를 통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다. 항동 행복주택은 임대조건을 제외하면 일반 아파트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규약을 가지고 있다. 각 동별로 1명씩 대표가 선출되어, 단지별 총 3명의 대표가 모이면 단지 내의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

9단지, 10단지는 '20년 12월 현재, 아직 대표가 모이지 않았다. 3개 동의 각 대표가 입후보하여 선출되어야 하는데, 단지별 1개 동씩밖에 선출되지 않았다. 나머지 각 2개 동에서는 입주 후 1년 8개월이 넘도록 대표가 나오지 않고,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반면, 11단지에는 일찌감치 동대표들이 나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각 단지마다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현재는 11단지만 개소하여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나머지 9, 10단지는 협의체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입주 2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도 구성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행복주택에 대한 관심도나 참여도가 다소 떨어지기도 하지만, 다른 행사를 하더라도 참여가 많이 부족한 것들을 보면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기도 한 듯하다. 11단지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이어 가고 있지만, 동 대표들 각자가 바쁘기도 하고, 전반적인 참여도가 낮은 편이어서 지원 시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최소 인원을 모으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03. 연구과정

1_연구모형 설계

1) 설문조사

총 2차에 걸친 설문을 진행하였다. 1차는 다소 교류가 있는 소규모 집단을, 2차는 전체 행복주택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소규모 집단을 먼저 실시하여, 문화연구에 대한 방법이나 단서를 얻고, 이후 설문을 개선하여 전체 인원의 의향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행복주택에 입주한 지 2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지만, 교류가 거의 없는 사람들도 많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얻기 힘들어 이와 같은 확산 형태의 설문을 진행하는 것이 전체 인원에게 보다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었다.

2) 인터뷰

인터뷰도 마찬가지로 1차, 2차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다만 1차는 심층 인터뷰로 설문을 세부 항목까지 나누어 진행하였다.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모집한 2차 인터뷰에서는 인원을 모집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었고 협조 측면에서도 다소 좋지 않은 반응이 있어 다소 간소화된 질문 및 서면으로 대체하여, 경향을 알아보는 정도로 진행할 수 있었다.

3) 전문가 자문

거주지 인근 대학교의 마을 및 청년활동 전문가(교수)를 초빙하여, 청년문화의 향후 발전방향을 질문하였다. 청년문화의 특성 및 문화진흥 방안에 관한 자문을 진행하였고, 동행한 서울시 관계자에게도 서울시 청년정책 및 관련 활동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4) 기관 인터뷰

청년정책 및 지원이 가능한 기관(서울시, 구로구)를 각각 인터뷰하였다. 서울시는 청년청, 구로구는 지역구 담당 구의회 의원을 만나볼 수 있었다. 각 기관별 시행중인 정책을 청취하고, 본 연구에 적합한 정책이 있는지 등을 질의하였으며 향후 지원계획에 관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04. 연구내용

1_설문조사

1) 1차 설문

입주 전·후로 다소 친분이 있는 약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응답률은 약 25%를 기록하였고, '교류가 다소 있는 집단'으로서의 기초조사 형태로 시행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이 중 인적사항 및 기초질문 등을 제외한 10여 개 항목을 분석하였다.

1. 귀하의 연령대는?(만)

26이하	3
27~30	8
31~34	8
35이상	4

[그림 4-1] 연령대

1차 설문 응답자의 연령대는 20대 후반~30대 초반이 가장 많았다.

[그림 4-2] 응답자별 업종

업종분류는 산업표준분류를 참고하였다. 실제로 다양한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고,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다소 교류가 있는 집단이더라도 서로의 직업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세분화하여 조사하지는 않았다.

[그림 4-3] 기혼 여부

기혼 및 기혼예정자의 비율은 약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5. 입주 후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는?

프로모터	6
긍정 사용자	18
불만 사용자	2

[그림 4-4] 주거 만족도

주거와 관련한 만족도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이기도 하고, 다소 하자 보수 건이 있었지만 양호한 대응으로 인해 만족도는 괜찮은 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건과 관련해서도, 입주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많은 정보가 오갔고, 사전점검이나 입주청소와 같은 일들을 통해 교류한 바 있어 만족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7. (주거 만족도) 편의성

프로모터	2
긍정 사용자	8
불만 사용자	16

[그림 4-5] 주거 편의성

반면 주거 편의성은 낮게 나타났는데, 서울에서 다소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교통이나 상권 등 인프라가 부족한 탓으로 만족도가 낮게 측정된 것으로 보인다. 버스도 늘어나고 서울자전거 '따릉이'도 생기면서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이러한 점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9. (경제적 요소) 행복주택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프로모터	6
긍정 사용자	12
불만 사용자	8

[그림 4-6] 경제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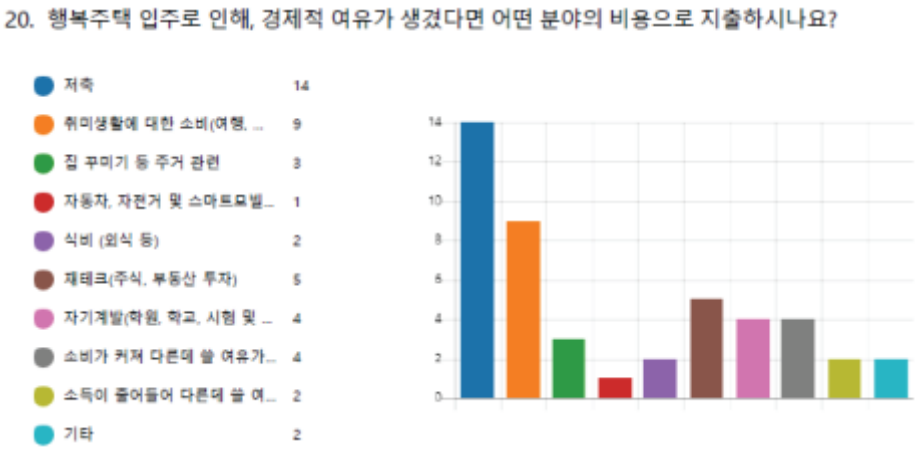
행복주택의 장점이라고 하면 낮은 주거비를 꼽을 수 있을 테지만, 신축 아파트의 개념으로 입주한 까닭에 옵션이 없고 각종 인프라의 부재로 인해 초기 투자비가 늘어난 점도 있다. 또한, 절감한 주거비는 집을 꾸미는 데 이용되거나 취미생활에 투자하는 형태가 되어, 결과적으로 경제성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5.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내에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가 필요하십니까?

프로모터	4
긍정 사용자	13
불만 사용자	9

[그림 4-7] 커뮤니티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설문자들은 다소 교류가 있는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후술할 인터뷰나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위적이거나 사람을 만나기 위한 커뮤니티는 청년층에게 큰 매력적 요소로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8] 비용 지출

소비형태는 저축 및 재테크 관련한 비중이 가장 컸고, 취미생활이나 주거 관련한 비용이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결과)

2) 2차 설문

2차 설문은 항동 행복주택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항동 내 SNS 오픈 단체채팅방, 단지 내 게시판(오프라인), 인터넷 카페 게시글 등을 통해 설문 인원을 모집할 수 있었다. 대상은 약 7~800명 정도로 잡았고, 이 중 144명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2인 가구를 고려했을 때, 입주민의 약 20% 정도의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설문 내용은 1차 설문과 다소 유사한 형태이지만, 항목의 특성을 고려해 내용을 다소 정비하였다.

[그림 4-9] 설문조사 포스터

2. 귀하의 연령대는?(만)

26이하	11
27~30	63
31~34	40
35이상	29

[그림 4-10] 연령대

연령대는 1차 설문의 분포와 유사하게 20대 후반~3대 초반이 약 70% 정도를 차지했지만, 30대 중후반의 분포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1] 업종별 종사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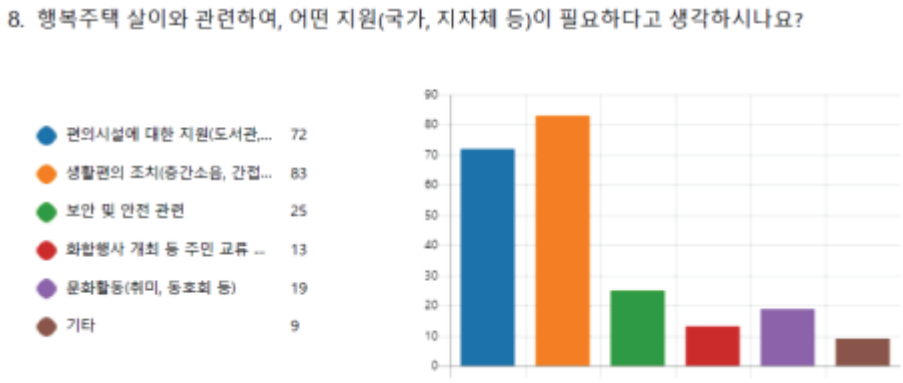
업종은 정보 및 기술·서비스 및 행정 관련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무직인 인원들이 다소 있었으며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포는 다소 적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4-12] 고용형태

고용형태는 정규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비정규근로자 및 특수형태, 단시간근로자 등의 분포도 있었다.

[그림 4-13] 기혼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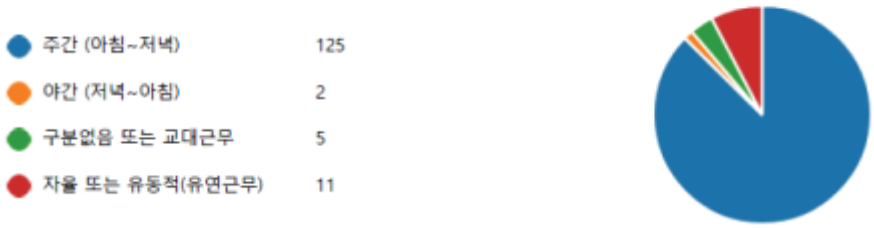
기혼 여부는 1차 조사 때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연령대 대비 기혼자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4-14] 지원 시책

지원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편의시설이나 생활편의(민원사항)와 같은 항목들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지역적 특성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면이 있고, 생활민원들이 아직도 산재하고 있어 이러한 요인들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9. 일하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그림 4-15] 근무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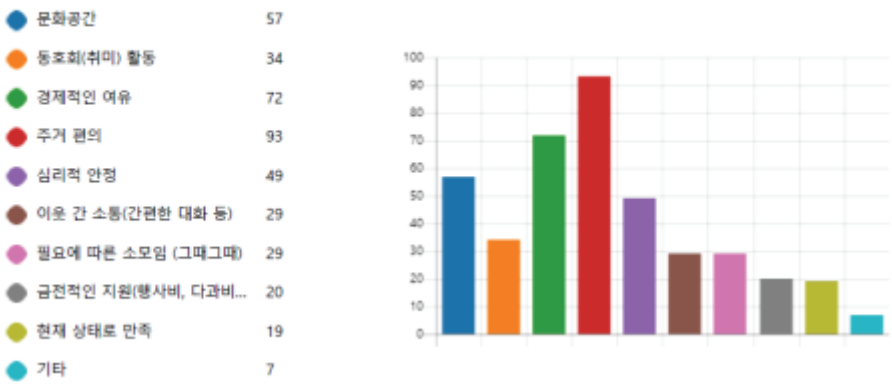
주간에 일하는 비율이 많았고,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도 많은 직장들이 여러 사유로 인해 출근 근무를 선호하기도 했다.

10.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내에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가 필요하십니까?

[그림 4-16] 커뮤니티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여부는 부정적인 측면이 크게 나타났다. 1차 설문과 같이 다소 교류가 있는 집단에서도, 자주(주~월 단위) 보는 것을 크게 선호하지 않는다. 공통점이 있어서 만나고 있기는 하지만, 특성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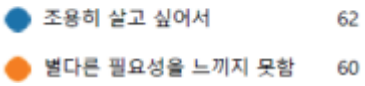
12. 즐거운 행복주택 살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복수응답)



[그림 4-17] 행복주택 살이에 필요한 것들

행복주택의 문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활동적인 영역보다는 공간(인프라)/경제적/주거 편의 등을 상위로 꼽았다. 경제적이나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면이 있어야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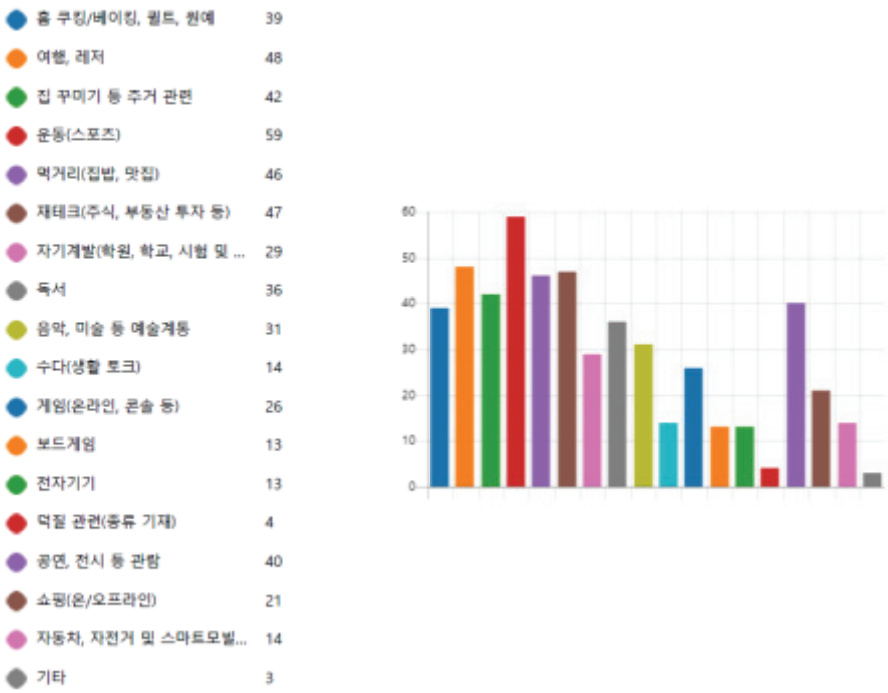
13. 항동(행복주택) 내 커뮤니티 활동이 필요하지 않다면, 어떤 이유인가요?



[그림 4-18] 커뮤니티 활동 관련

커뮤니티 활동과 관련한 항목에서도,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확인됨을 알 수 있다.

16. 귀하의 관심사는? (취미 및 생활)



[그림 4-19] 취미활동 및 관심사

관심사 측면에서 알아본 바로는, 문화활동을 진행한다면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결과를 볼 수 있었다. 다만 뭘 만들거나 여행/운동 등에서의 관심도가 컸고, 주식 및 부동산과 같은 재테크에도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_인터뷰

1) 1차 인터뷰

1차 인터뷰는 1차 설문과 마찬가지로, '다소 교류가 있는 집단' 중에서 약 10여 명을 선발하여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8월 말~9월 초 경, 약 2주간 집단/개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FGI 형태로 실시하였다.

1차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행복주택에서의 만족도는 어떤지
- 환경적으로 어떤 개선점이 필요할지
- 교류 및 문화진흥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등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표 4-1] 1차 인터뷰 질문 내용

항목	세부 내용
행복주택에 대한 생각	입주하게 된 이유
	인터뷰에 참여하게 된 이유
입주 후 이야기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
	좋았던 일들
	나빴던 일들
행복주택에 대한 인식	입주 전의 생각
	입주 후 달라진 점
입주 후 어려운 점 또는 느낌	어려움을 느끼는 것들
	생활하면서 가지는 고충
	건강(+스트레스 요인)
	안전(치안)
	소득 또는 직업의 변화(이직, 승진 등)
	소비 변화
	여가활동
	결혼, 출산 등 가정생활
제도 관련 (제안사항, 정책적 욕구)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
	서울시 또는 기관 지원금 이용 경험, 느낌
미래의 기대감	향후 계획, 목표
	꿈꾸는 행복주택에서의 생활

주요 답변으로는

- 주택이나 주거에 대한 전반적인 점들은 긍정적임
- 민원요소가 있으나, 전에 살던 곳들보다는 양호한 편
- 상권이나 인프라는 없는 반면 치안은 좋은 편(밤늦게도 별로 위험하지 않다)
- 인근에 문화시설이 부족함
- 커뮤니티는 현재 알고 지내는 인원들로 충분함, 많은 인원이 모일 필요는 없음

등을 꼽을 수 있었다. 다소 교류가 있는 집단에서도, 커뮤니티 활동 자체는 많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2차 인터뷰 및 면담

2차 인터뷰는 2차 설문에 응답한 인원들을 대상으로, 개인 및 서면 응답과 집단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설문 항목은 1차 때와 유사한 형태이지만, 대담 형태로 진행하여 특별한 인터뷰 형식은 띠지 않았다.

[표 4-2] 2차 인터뷰 질문 내용

항목	세부 내용
행복주택에 대한 생각	인터뷰에 참여하게 된 이유
생활	장점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커뮤니티	커뮤니티 활동 여부
	청년들 간 문화활동의 필요성
활동	활동 참여 여부
	활동에 대한 생각 등
기타	기타의견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거나 주택에 대한 불만은 없는 편
- 교류가 없기는 하지만, 불편하거나 관련한 필요를 느끼지는 않음
- 동호회 1~2개는 괜찮으나, 자주 보이는 것은 다소 불편함

- 인근 주민들(일반단지 및 타 지역구)과의 동호회 활동이 있는 경우도 있음
- 문화행사가 있다면 참여할 의사는 있으나, 개인정보나 사생활 노출이 우려됨

등의 결과를 알 수 있었다. 1차 때와는 비교가 될 만한 내용들이었지만, 마찬가지로 교류를 위한 활동들은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 참여자들은 100여 명이었지만, 인터뷰를 희망한 인원은 5명이 채 되지 않았다. 인터뷰 참가자들의 반응도 적극적이지는 않았는데, 관련 활동의 필요성이나 흥미 측면에서 다소 부정적인 반응들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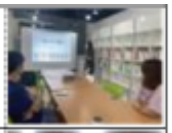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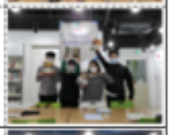
3_문화진흥 활동

1) 개요

본디 문화'실험'형태로 기획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 등 모임이 어려운 관계로, 지자체 등에서 시행한 유사한 형태의 활동 관찰기로 대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와 병행하여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하여 활동한 바 있어 이를 참고하고자 한다. 또한, SH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 활성화 등의 활동을 참고하였다.

2) 행복주택 내에서의 문화진흥 활동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구로구 등에서 시행/지원하는 '마을공동체'사업에서 몇 가지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행복주택에서는 9~11단지 연합팀 1팀, 11단지 1팀이 참여하여 여러 화합행사를 진행했다. 이 중 11단지 팀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여,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팀에는 본 연구의 연구진들도 다수 활동하거나 참여함으로써, 체험 및 실험 형태를 병행할 수 있었다.

필수사업 열린 마을강좌	· 주제 : "마을,가치,공동체" · 구분 : 마을공동체 기본 이해 · 강사 : 주수경	2020.08.19. / 참여6인	마을 내 우리의 역할 확인. 코로나19 확산 및 하계휴가 기간에 따라 일정 확약의 어려움 있음.	
세부사업1 1달 1소통	· 주제 : "입주 후 1년, 달라진 나의 변화는?" · 방법 : 자기소개→자율발언→개인별 질의→마무리 · 홍보 : 아파트 내 게시판	2020.05.29. / 참여10인	이웃 간 서로 인사, 공동의 관심사를 통한 분위기 환기 등을 통해 어색함을 없앰.	
	· 주제 : "도토리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 방법 : 자기소개→자율발언→개인별 질의→마무리 · 홍보 : 아파트 내 게시판	2020.06.18. / 참여10인	봉사 및 운영에 따른 소소한 역할 분담을 통해 이웃 간 허물을 없앰.	
	· 주제 : "나의 특별한 여름나기 소개하기" · 방법 : 자기소개→자율발언→개인별 질의→마무리 · 홍보 : 아파트 내 게시판	2020.07.15. / 참여12인	매월 정기모임을 통한 친밀도 상승, 부담 없는 주제 선정의 결과→참여도 증가.	
	· 주제 : "지속가능한 소통을 위한 노력 : 1인 1주방" · 방법 : 사전 희망요리 선정→장보기→재료분배→개인별 요리 수행→후기 공유	2020.11.16. / 참여4인	대면 식사도 좋지만, 서로의 안전을 위해 개별 진행. 첫 언택트 사업. 향후 사업 진행방향성 제시 시사	
세부사업2 도토리 북살롱	· 주제 : "나의 인생책 이야기-1" · 방법 : 자기소개→책 소개 및 사연 이야기→개인별 질의→마무리 · 홍보 : 아파트 내 게시판	2020.06.30. / 참여10인	개인별 책 선호도를 알 수 있었음. 향후 작은 도서관 책 관련 사업 진행시 방향성 제시.	
	· 주제 : "나의 인생책 이야기-2" · 방법 : 자기소개→책 소개 및 사연 이야기→개인별 질의→마무리 · 홍보 : 아파트 내 게시판	2020.10.30. / 참여6인 (장소 : 커피스트랑101)	1차 진행시 반응이 좋아 같은 주제로 진행. 참석 정황로 책 여가시간이 늘어나면서, 개인별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누기 좋았음.	
세부사업3 소확행 (손으로 만드는 확실한 행복)	· 주제 : "담금주 만들어 보아요." · 방법 : 사전 희망자(재료비) 취합→논의 후 품종선정→당일 제작 · 홍보 : 아파트 내 게시판, 마을 커뮤니티 온라인 게시글 등록	2020.07.18. / 참여8인	사전 신청을 통한 사업 당일 혼란 해소. 해당 품종과 관련한 '나'의 이야기를 공유, 서로의 관심사 이해에 도움.	
	· 주제 : "겨울 소품 만들어요." · 방법 : 사전 희망자 모집→키트 배부→온라인 체험 소감 수다회	2020.11.23. / 참여15인 (키트18개)	키트 개별 배부 후, 개인별 품종 제작을 통한 공동 경험 습득.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언택트 공동체 활동 수행 완료.	

[그림 4-20] 11단지 마을공동체사업 활동 현황

05. 결론

1_연구 결과 요약

여러 인터뷰와 설문조사 및 조사 결과, 청년들의 문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적 활동보다는,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소소한 만남과 같은 '작은 만남'들이 있어야 하며,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활동들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연스럽게 형성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되더라도 뭔가 구심점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소수의 인원들만이 활동하게 될 수 있다.

[표 5-1] 연구 결과 정리

요소	어려운 점	해결 방안
시간	시간 맞추기가 어려움	온/오프라인 병행
공간	모일 장소가 부족함	커뮤니티센터 활용 (조건 완화)
신뢰(안전)	구성원 간 신뢰도 부족	개인정보 보호 및 온/오프라인 신뢰 형성
재미(흥미, 관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컨텐츠 개발 취미 별 모임 다양화
지원 정책	번거로움 (지원사업 절차 및 과정)	절차 간소화, 자유활동 유도

2_행복주택의 청년문화 정책적 방향

1) 지원 시책 및 방법

문화의 형성은 구성원들이 필요하다면 자발적으로 생겨날 수도 있지만, 형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관련한 계기가 없다면 발생하기 어렵다. 또한 주변의 지원이나 관심이 없더라도 지역 및 집단 간 문화 등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본다. 뭔가 계기가 있거나, 사건이 없다면 더 어렵다. 개성이 강한 최근 청년층의 특성을 보더라도 스스로 뭔가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과 관심이 필요하다. 다만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해야 하고, 인위적이지 않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만나야 할 것이다. 인터뷰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커뮤니티나 공동체 생활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

다만, 행복주택 내 SNS나 소규모 집단들을 보면, 어느 정도의 정보교류나 이웃 생활 정도는 필요함을 느낀다. 설문조사에서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기타의견'을 보면, '있으면 좋다'라는 의견들을 볼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점에는 몇 가지 조건이 따를 수 있다. 첫째, 개인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생활까지는 알기 어렵다. 하지만 유사한 주거공간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행동만 보더라도 행동 패턴을 추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들은 '신뢰'나 '불안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발적이어야 한다. 다소 교류가 있는 집단에서도 모임의 빈도가 그리 높지는 않다. 동네 친구들도 하나의 '인간관계'이다. 새로 사람을 만나는 일은 이래저래 피로감을 불러올 수 있어서, '동네 친구'의 선을 어느 정도 두고 모임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인프라 조성

환경적인 여건이 주어진다면 좋을 것이다. 입주 초기에는 모임의 장소가 없어 각자의 집에서 보거나, 다소 먼 곳에서 보기도 했다. 동네 친구들의 장점은 집에 갈 때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각자 헤어질 때도 문 앞까지는 같이 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도 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된다면 매일 같은 패턴이 되고, 관계의 진척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어디를 가더라도, 누굴 만나도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3) 정주 여건 조성(민원요소 해결)

층간소음, 흡연, 쓰레기 처리 등 생활 문제들의 해결이 필요하다. 다른 지역에서도 공통으로 일어나는 일들로, 다소 아는 사람들끼리는 분쟁이 적은 편이지만 전체 단지로 넘어가면 주 1회 정도는 민원이 발생하는 편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관리소에서 게시물이나 방송을 하는 편이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입주한 지 2년 정도 되었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사소한 스트레스일 수 있지만, 건강한 행복주택 생활을 위해서는 필요한 문제해결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주변 자원 활용

근처에 있는 대학교나 인근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본 지역 인근에는 대학교가 있어, '산학협력'과 같은 형태로 문화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 유치 측면도 있지만, 마을공동체 등의 사업 구상 시에도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 측면에서도 가까운 곳에서 자기 계발이 가능하고, 학위과정이나 비 학위 단기과정 등을 통해 더 향상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과정이 있다면, 퇴근 후 집 근처에서 수업을 받고 귀가하는 시간도 적게 소요될 수 있다. 현재도 시험기간이 아닌 주간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다. 향후 시설 측면에서도 확대한다면, 유/무료 서비스를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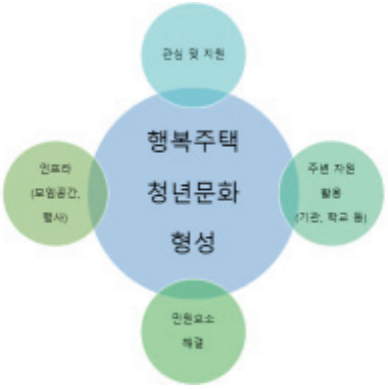
지역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에는 '항동FC'라는 축구팀이 있다. 여기에서 활동하는 행복주택 청년들도 있다. 다만 축구라는 특성상 남자들만 주로 참여하고 있는데, 여자들이 모이는 커뮤니티도 있다면 행복주택 외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조사한 바로는 맘 카페 등에서 육아나 결혼생활과 관련한 취미 등을 함께하는 커뮤니티가 있기는 하지만, 행복주택에 사는 청년들은 아직 미혼이나 아이가 없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수 있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항동지구를 바탕으로 행복주택 청년들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고,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을 알아보았다. 연구에서 알아본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보다 더 자연스럽고 편한 만남들을 만들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정주여건과 같은 경우는

특히 입주 초기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 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좋을 것이다. 생활정보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꼭 친하게 지내는 경우가 아니라도, 주변 상점이나 각종 행사 정보는 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꼭 취미를 공유하는 모임이 아니더라도 신뢰를 쌓고, 알아가는 이웃들을 만드는 활동들을 할 수 있다. 기관이나 지자체의 지원이 있다면, 그러한 활동을 계기로 더 많은 만남을 이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본 연구에 쓰인 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입지 조건이나 생활 여건에 차이가 있어 이러한 요소들을 수정하여 반영한 정책을 편다면 유사한 사례로 적용 가능할 것이라 본다. 해당 지역에서 조사된 내용은 일반적인 사례로 보기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것들이나, 기본적인 성향 등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본다. 항동지구에 모여 사는 청년들도 본디 고향은 대부분 다른 곳에 있고, 주거를 위해 모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소~중규모로 모여 사는 청년들이 집단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면 보다 더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이나 가치창출 등의 시너지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1] 행복주택 청년문화 정책방향

참고문헌

기현주, 정세정(2020), 서울시 청년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유해연, 박연정(2019), 서울시 청년시설의 정책적 개선방향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고진수, 이창무(2017), 행복주택이 인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주택연구.

김지현, 강수진(2020), 행복주택 성과지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주택연구.

김성연, 권성문, 서원석, 양광식(2015).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정책요인 우선순위 분석 연구, 국토연구.

김종언(2016), 행복주택의 새로운 시도와 과제,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신동윤, 권오정(2016), 행복주택에 대한 대학생의 의견과 개선방향,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장진업, 강순주(2015), 행복주택 내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방향, 한국주거학회 학술대회논문집.

임종현, 전진우, 신유정, 박경옥(2019). 행복주택의 물리적 특성 및 청년층의 주거만족도와 지역교류, 한국주거학학술대회논문집.

김경례(2018). 청년 일자리 정책에서 문화 정책으로, 월간 공공정책.

김영미(2018). 한국 2030세대의 청년정책에 대한 태도와 영향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0년 청년지원정책 추진계획(2020), 서울시 청년청.

서울청년정책 개요, 서울시 청년청 홈페이지(youth.seoul.go.kr)

구로구 청년정책 세부추진과제(2020)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항동하버라인 11단지 마을공동체 팀 제공자료(2020)

youth.seoul.go.kr/youth/(서울청년포털)

www.law.go.kr(국가법령정보센터)

www.i-sh.co.kr(서울주택도시공사)

작은연구 좋은서울 20-07

행복주택 청년들의 문화진흥 정책연구
- 서울시 구로구 항동지구를 중심으로

발행인 서왕진
발행일 2020년 12월 23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비매품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